

한국영화 첫 항공재난물 '비상선언' 8월 3일 개봉 앞두고 시사회

'테러범' 임시완 "당위성 자체가 없는 캐릭터"

한재림 감독 '신의 한수' 캐스팅 "평범한 청년이 테러...그게 재난" 송강호 "사회 향한 묵직한 메시지"



'이벤저스급' 배우 박해준, 임시완, 김남길, 전도연, 송강호, 이병헌, 김소진(왼쪽부터)이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비상선언'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비상선언'이 여름시장 흥행을 향한 이륙 준비를 마쳤다. 2013년 '관상'으로 10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은 한재림 감독이 이끌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등 톱스타급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 영화는 '한국영화 최초의 항공 재난물'을 표방하며 8월 3일 흥행을 위한 '조종간'을 당긴다.

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갑자기 불어 닥친 감염병 확산 사태로 인해 촬영 내내 "더욱 생각이 많아졌다"는 한 감독은 "재난을 맞이하면 남을 비난, 원망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걸 목격했다. 그럼에도 각자의 이성적인 선택을 통해 지금 모두가 함께 감염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나"면서 "사소한 인간성에 집중하면 재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힘줘 말했다.

들로 채운 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재난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자신했다. ●신의 한수...임시완 이날 공개된 영화에서 가장 시선을 모은 인물은 최악의 테러범을 연기한 임시완이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들었다. 전작들을 통해 보여줬던 반듯한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새로운 얼굴을 꺼내 들었다. 작품을 할 때마다 "캐릭터 행동의 당위성"을 찾으려 했다는 임시완은 "이번에"

는 캐릭터의 당위성이 설명되지 않았다. 당위성 자체가 없는 캐릭터였다"고 말했다. 한 감독은 "맑은 얼굴"을 가진 임시완에게 악역을 맡긴 이유를 설명하며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테러범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더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잘 자란 청년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총기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며 "재난은 늘 예상하지 못한 데서 찾아오는 거 아닌가. 테러 범처럼 굉장히 평범하면서 절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테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예능·연기' 두 토끼 잡은 이이경

뛰어난 예능 센스...OTT·TV 넘나들며 활약 영화 '육사오'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출연



배우 이이경

배우 이이경이 예능과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뛰어난 입담과 성실한 태도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해온 이이경이 새 영화 '육사오'와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으로 스크린과 무대를 연이어 공략한다.

8월 개봉하는 영화 '육사오' (감독 박규태, 제작 TPS 컴퍼니)로 2020년 '히트맨' 이후 2년 만에 스크린 주연으로 나선다.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린 57억 원의 1등 로또를 둘러싼 남북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날아온 로또를 쫓게 된 북한 GP 상급병사를 연기한다. 놓쳐버린 로또를 되찾고자 하는 남한 GP의 말년병장 고정표와 코믹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6일 개막하는 화제의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으로 2016년 '알타보이즈' 이후 6년 만에 무대에도 선다. 2020년 종영한 현빈·손예진 주연의 한류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월드 프리미어 전임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원작에서 김정현이 연기했던 북한으로 도피한 영국 극작가의 사임가역을 맡았다.

데뷔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입담과 예능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그는 현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TV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SBS플러스·ENA플레이 '나는 솔로'와 서바이벌 예능 티빙 '제로섬게임'에서 각각 데프콘·송해나, 장선규·한혜진·우기와 MC를 맡아 참가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빠르게 읽는 센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의 괴담꾼을 찾는 MBC '심야괴담회'에서는 시청자를 빠져들게 하는 실감나는 스토리텔러로 활약 중이다. 지난해 종영한 채널A '2022 DIMF 뮤지컬스타'에서는 단독 MC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예능 센스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이경과 한 번 호흡을 맞춘 제작진이 다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능프로그램 관계자는 25일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아서 예능 소재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참여한다"라며 "예능 현장의 유쾌한 분위기가 카메라 밖으로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현 시국을 대변하는 시의 적절한 재난물

한 감독이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작품"은 총기나 휴가 아닌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통한 테러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재난 상황이라는 설정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길고 긴 고통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대변하는 듯해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악녀 열연' 유선 "드라마로 이렇게 많은 전화 받을 줄 몰랐죠"

'이브'서 욕망에 솔직한 악녀 호평 "집안일 도맡아준 남편 지원 덕분에 다양한 캐릭터 도전 멈추지 않을 것"



유선

"지고지순한 역할, 아젠 재미없죠." 배우 유선(왕유선·46)이 제대로 '각성'했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이브'를 통해 욕망에 솔직한 악녀를 연기한 그녀는 "시청자를 더 짹짹 놀라게 하고 싶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드라마 촬영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의욕 충만 상태"라며 웃었다. 25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나 유선은 "드라마로 인해 전화를 이렇게나 받는 적은 처음"이라고 돌아섰다. 드라마에서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서제와 팽팽하

게 대립하면서 광고 어린 눈빛을 캐릭터로 표현해 호평을 이끌어냈다. "한국 예술 종합학교 연기과 동기인 황석정 언니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배우로서 좋은 길을 걷는 너를 보고 힘을 얻는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펄펄 났어요. 연기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기에 정말 많은 답을 얻었어요." 드라마 섭외를 받은 지난해 여름을 그는 "슬럼프"로 기억했다. 13년 만에 무대에 오르는 연극 '마우스피스'의 첫 공연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를 떠올리며 유선은 울크했다. "제 연기가 어느 순간부터 답답해졌어요. 제자리걸음을 걷는 기분이었죠. 체계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체절명의 기점이었어요. 내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싶었죠. 연극과 드라마에 온 감정을 퍼붓다 보니 점점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하면 결국 공감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렇게 10개월가량을 "내달리지만" 했다. 질주에 기름을 부어준 응원군은 남편과 올해 8살인 딸이다. 기세를 몰아 조만간 새 드라마 '중이의 달'을 촬영한다.

"남편에게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며 도와 달라 부탁했어요.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이 모두 배려 모드로 전환하더라고요. 남편은 요리를 제외한 집안일을 전부 도맡았어요.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열심히 해'라며 능담처럼 격려해줬죠. 지금은 누구보다 제 드라마를 좋아해줘요. 맛갈이나 영상을 찾아보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앞으로도 "엄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캐릭터로 시청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릴러 영화부터 가족드라마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물 만난 고기'처럼 카메라 앞에서 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도전의 모험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에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야구 기록실 (25일)

Table with baseball statistics including team scores, player stats, and performance metrics.

●타격

Table showing batting statistics for individual players, including at-bats, hits, runs, and RBIs.

※타율: 안타÷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이닝

메이저리그 (25일)

Table with MLB statistics for American League teams.

●내셔널리그

Table with MLB statistics for National League teams.

※득점점 타율: 주자2루, 3루, 1·2루, 1·3루, 민투시타율 OPS: 출루율÷장타율

경기예고

프로야구 (26일)

Table with baseball game preview information including matchups and broadcast details.

아마추어 경기 (26일)

Table with amateur sports event information including tennis and badminton matches.

경기예고

프로야구 (26일)

Table with baseball game preview information including matchups and broadcast details.

아마추어 경기 (26일)

Table with amateur sports event information including tennis and badminton matches.